# 도서유통구조 개선의 현실적 방안

## 실시가능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李京馥
부산 翰林書院 대표

책의 소비량, 즉 국민의 독서량이 그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좋은 책을 만들어내야 하는 출판사와 그 책을 독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해야 하는 서적상은 국가의 문화창달에 이바지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근 40년간 서적계에 몸담아 도서유통의 일익을 담당해오면서 필자는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일해 왔다.

그러나 지난날의 서적상 경영실태를 뒤돌아볼 때, 과연 우리 서적상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하게 수행하였는가 하는 自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서유통경로를 살펴보면 개선해야 할 점이 하나 둘이 아닌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보다 바람직한 유통구조를 출판사와 서적상이 합심하여 확립해가는 꾸준한 노력 없이 한국출판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우리의 출판물 유통구조는 날이 가고 세월이 지날수록 무질서하여지고 있고, 지금도 어제가 옛날일 정도로 변하고 있다. 내일은 또 어떠한 기발한 유통과정을 창출하여 출판·서적상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게 될지 걱정이 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유통과정이 공공연히 횡행되고 있는 것은 출판계 서적상계 공동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출판계가 주도하여 도서 유통구조 개선을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것은 지금까지 출판사가 추진하였던 도서유통구조 개선방안들이 출판계 자체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점업계의 호응도 얻지 못한 일방적인 개선방안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감대와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은 그 방안들이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이상론에만 치우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출판물 유통구조 개선은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이뤄지기 어렵다. 실시가능한 지역부터 시작해 점차 전국적으로, 참여가능한 출판사부터 시작해 점차 전체 출판사로 확대해나가는 점진적 방안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출판사와 서적상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가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판물 유통구조 개선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한꺼번에 모든 문제점을 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강압적인 개선방안은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볼 때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유통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상 경로를 통하여 영업하고 있는 양심적인 서점만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시가능한 지역부터 추진하여 점차로 전국으로 확대하고, 출판사도 참여가능한 출판사부터 시작하여 전체 출판사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유통구조 개선의 첫 대상지역으로서는 수십년 전부터 都·小賣 유통구조가 분리되어 지금까지 도매점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釜山지방부터 시도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실시 방법으로는 연간 매상의 기복이 심하지 않으면서 상위 그룹에 속하는 30~40개 출판사가 부산지방에서 출판사별로 都賣店을 지정하여 단일거래를 하고, 타 지역으로부터의 도서 유입을 차단하여 주었으면 한다. 이렇게 되면 都賣商은 우선 20여개 정도의 출판사만 거래하여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며, 그외의 出版社는 都賣商에게 단일去來를 권유할 수 있을 것이다.

都賣商은 출판사로부터 공급받는 도서를 小賣商에 위탁으로 공급하되, 서점의 위치, 매장의 공간 등을 참작하여 일반도서, 학술서적, 전문도서 등으로 구분, 소매서점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한다. 만일 전 품목을 수탁받아야 할 대형서점이 특정 품목의 수탁을 거절할 때는 당해 출판사의 타 품목도서를 공급치 않음으로써 전 품목을 진열 판매토록 유도한다.

소형서점에 대해서는 그 서점의 특성에 맞게 일반도서 또는 아동도서 등만 위탁하고, 학술서적 등 여타 도서를 요구할 때는 返品없는 조건으로 현금 판매하면 불필요한 공급으로 인한 반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모든 도서가 적재적소에 진열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도매상이 출판사로부터 위탁받은 도서를 이상과 같이 小賣商에 공급하면 출판사는 무슨 책이 몇권 진열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新刊을 간행할 때도 적절한 수요량을 쉽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소매점은 많은 종류의 도서를 위탁받아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장확장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하여 釜山지방에서 단일거래가 성공하면 이 제도를 인근지방으로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전국을 동일한 방법에 의한 거래로 流通構造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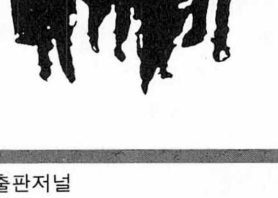
이상 필자가 제시한 점진적 유통구조개선방안은 총판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이렇게 하면 출판사 상호간의 마찰을 배제시킬 수 있고, 도매상의 횡포도 막을 수 있으며 小賣商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에 의한 매장 확장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화/(02) 242-2097·2098
팩시밀리/242-2098

책/이/있/는/삶/꿈/이/있/는/삶

도서출판 문덕사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92-3 화천빌딩 407호

유일상 언론평론집
**벌거벗긴 한국언론**



진실을 알기위해서는
뉴스가 되기 이전의 벌거벗은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언론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부적절한 은유로 사태의 본질을 은폐·왜곡하는
말장난들이 어떤 모습으로 숨어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신국판/304면/값3,500원

김병모 에세이
**옥스포드에서 온 편지**

신간!

〈고고학〉이라는 외진 학문세계에서
知天命의 나이를 맞이한
한 고고학자가 〈체험〉을 바탕으로

어느 고고학자의 세상사는 이야기

털어놓는 세상사는 이야기.
그 진솔한 내면의 세계를
만나보십시오.

*신국판/274면/값3,500원